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2:18-25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Verse 18, *And Jehovah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 help as with him.*

※ 18절 속뜻

주님의 인도 아래 살되 무슨 로봇이나 갓난아이처럼 아주 작은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상태가 아닌, 건강한 자아, 성장한 자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인도 아래 천사들처럼 사는 것, 이를 위해 주님은 천적 인간에게 자치를 허락하시며, 그의 자치를 돕도록 도와십니다. 이것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 이하 영어 ‘own’은 그냥 한글 ‘오운’으로 적겠습니다. 마치 영어 ‘innocence’를 한글 ‘이노센스’로 적

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몇몇 단어들은 그 괜찮은 뜻이 여러 가지이면서 딱히 ‘이거다’ 할 만한 번역은 또 마땅치가 않은, 그래서 어느 하나로 픽스할 경우 나머지 뉘앙스들을 다 놓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어 ‘affection’ 또한 같습니다. 보통 ‘애정’(愛情)으로 번역하면 무난하지만... 저는 그냥 ‘어펙션’으로 적겠습니다. ‘perception’도 마찬가지로, 그냥 ‘퍼셉션’으로 적습니다.

138 ‘혼자’(alone)는 그가 주님의 인도로 만족하지 않고, 대신 자신(self)과 세상의 인도를 원했음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a help as with him)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자로 만드신 갈빗대’(a rib built into a woman)라고 한 인간의 오운을 각각 상징합니다. *By “alone” is signified that he was not content to be led by the Lord, but desired to be led by self and the world; by a “help as with him” is signified man’s own, which is subsequently called a “rib built into a woman.”*

※ ‘인간의 오운’(man’s own)은 ‘자치’(自治, a sense of autonomy), ‘자

창2:18, AC.138-14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율’(自律)을 말합니다. 나쁜 뜻으로는 ‘주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악한 경향’이지만 좋은 뜻으로는 ‘이제 다 컸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함’이라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후자에 가깝다 생각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조종당하는 로봇처럼 살거나 아주 작은 결정도 다 주님께 미루는 유약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적 인간의 오운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그로 하여금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더욱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139 고대에는 천적 인간들처럼 주님의 인도 아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악이나 악한 영들로 인한 들끓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In ancient times those were said to “dwell alone” who were under the Lord’s guidance as celestial men, because such were no longer infested by evils, or evil spirits.*

※ 사람들, 특히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에 파도가 일 때, 순간 저는 ‘이노센스’(innocence, 순진무구)를 붙잡습니다. 천국

이노센스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기뻐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신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심령 가득 천국의 평화가 오며,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악이나 악한 영들로 인한 들끓음이 없다’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교회에서도 역시 이런 상태를 다른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대신 그 땅에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This was represented in the Jewish church also by their dwelling alone when they had driven out the nations.*

이런 이유로 말씀에서 종종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 ‘홀로’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에서처럼 말입니다. *On this account it is sometimes said of the Lord’s church, in the Word, that she is “alone,” as in Jeremiah:*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빛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렘49:31) *Arise,*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get you up to a quiet nation that dwelleth confidently, saith the Lord, which hath neither gates nor bars; they dwell alone. (Jer. 49:31)

모세의 예언에서도 *In the prophecy of Moses:*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신33:28) *Israel hath dwelt confidently alone. (Deut. 33:28)*

그리고 계속해서 발람의 예언에서는 더 분명하게 *And still more clearly in the prophecy of Balaam:*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민23:9) *Lo, the people dwelleth alone, and shall not be reckoned among the nations, (Num. 23:9)*

여기 ‘여러 민족’은 악을 말합니다. *where “nations” signify evils.*

※ 곧, 여러 다른 종류의 악을 말합니다.

이 태고교회의 후손은 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천적 인간이 되려 하거나 그들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고, 대신 유대교회처럼 여러 민족과 어울려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This posterity of the most ancient church was not disposed to dwell alone, that is, to be a celestial man, or to be led by the Lord as a celestial man, but, like the Jewish church, desired to be among the nations.*

※ 다음은 천사들의 이노센스에 대한 글입니다. ‘천국과 지옥’(김은경역) 책, 278번 글에서 인용합니다.

...순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한 것도 제게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근원을 주께 돌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

...그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받는 모든 것의 근원을 주께 돌리기 때문에

창2:18, AC.138-14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기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들이 자기 본성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 주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다...

...순진함이란, 어떤 선함도 그 근원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주께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혜를 이루는 모든 선과 진리를 받는 근본이 된다...

이들이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악 가운데 있으며, 악이 그에게 허락됩니다. *And because they desired this, it is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for he who desires is already in evil, and it is granted him.*

※ 이때의 ‘혼자 사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의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오운을 업그레이드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곡해, 둘째처럼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사람의

140 오운(*man's own*)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 오운의 본성으로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That by “a help as with him” is signified man's own, is evident both from the nature of this own, and from what follows.*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인(教會人, *the man of the church*)을 주님이 좋게 보셔서(*was well disposed*) 그에게 어떤 오운이 허락되었는데(*an own was granted*), 그게 마치 원래부터 그의 오운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어서 이르시기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 하신 것입니다. *As however the man of the church who is here treated of was well disposed, an own was granted him, but of such a kind that it appeared as it were his own, and therefore it is said “a help as with him.”*

※ ‘좋게 보셨다’(*was well disposed*)는 것은 ‘좋은 캐릭터를 가졌다’(*had good character*)는 뜻이고, ‘어떤 오운이 허락되었다’(*an own was granted*)는 것은 ‘자치(自治)가 허락되었다’(*were granted self-direction*)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41 인간 오운의 본성을 육적, 세속적 인간, 영적 인간, 그리고 천적 인간으로 설명하려면 그전에 먼저 인간 오운에 관한 수많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nnumerable things might be said about man's own in describing its nature with the corporeal and worldly man, with the spiritual man, and with the celestial man.*

육적, 세속적 인간에게는 그의 오운이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오운밖에는 아는 게 없고, 앞서도 말했듯, 그는 만일 자기가 이 오운을 잃으면 자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With the corporeal and worldly man, his own is his all, he knows of nothing else than his own, and imagines, as before said, that if he were to lose this own he would perish.*

영적 인간의 경우 역시 비슷합니다. 비록 그가 주님은 만물의 생명이시고, 지혜와 사고력을 주시며,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지라도 그에게 있어 이런 지식은 아직은 마음속 신념이라기보다는 입

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With the spiritual man also his own has a similar appearance, for although he knows that the Lord is the life of all, and gives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consequently the power to think and to act, yet this knowledge is rather the profession of his lips than the belief of his heart.*

그러나 천적 인간은 주님은 만물의 생명이시며, 생각하고 행동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식별합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But the celestial man discerns that the Lord is the life of all and gives the power to think and to act, for he perceives that it is really so.*

※ 이는 마치 영어를 교과서로 배우는 한국 학생과 실제 미국 뉴욕에서 살다 온 학생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아래 말씀도 같습니다.

³³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창2:18, AC.138-14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니라 ³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31:33-34)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주님을 학습을 통해 배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퍼셉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오운을 원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오운을 그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선함과 참됨을 아는 모든 퍼셉션, 그리고 모든 행복과 결합되는 오운입니다. *He never desires his own, nevertheless an own is given him by the Lord, which is conjoined with all perception of what is good and true, and with all happiness.*

※ 천적 인간은 절대 주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독립심이나 자아 (*autonomy or selfhood*)를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오운은 그가 가진, 선과 진리를 지각하는 능력과

행복에 다이렉트로 결합하는 오운이라는 말입니다.

※ 그만큼 주님은 천적 인간을 믿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천사들은 이런 오운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동시에 가장 내적인 평화와 기쁨 (*the highest peace and tranquility*)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오운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며, 주님은 그들의 오운을 다스리시거나 그들의 오운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The angels are in such an own, and are at the same time in the highest peace and tranquility, for in their own are those things which are the Lord's, who governs their own, or them by means of their own.*

이 오운은 가장 천적인 것 그 자체인 반면, 육적 인간의 오운은 지옥입니다. *This own is the veriest celestial itself, whereas that of the corporeal man is infernal.*

이 오운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But concerning this own more hereafter.*